

건입동 본향당...영등신 등 3종 6신위 모셔

칠머리당은?...기능보유자는 김윤수 심방으로 당의 3대 매회심방

데스크승인 2014.03.19 김현중 기자 | tazan@jejunews.com



칠머리당은 제주시 건입동의 수호신을 모신 본향당이다. 본래 이 당은 산지항 동쪽 속칭 '칠머리'란 절벽에 있었다. 칠머리는 일곱 개의 머리 모양이라고 해 생긴 지명이다.

그런데 옛 주정공장 부지 조성으로 절벽이 깎이면서 당이 현 해양항만청 인근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현재 위치인 사라봉과 별도봉의 중간 언덕으로 옮겨졌다.

당에는 바위 3개가 나란히 서 있다. 왼쪽은 영등신인 영등대왕·해신선왕, 중앙은 본향신인 도원수 감찰지방관·요왕부인, 오른쪽은 남당하르방·남당할망 등 총 3종 6신위를 모신 것이다.

남당하르방·남당할망은 제주시 일도동의 속칭 '막은골'에 있던 남당의 신들이었는데 이 당이 헐리면서 칠머리당에 함께 모셔졌다.

칠머리당의 메인심방 계보는 이달춘-안사인-김윤수 심방으로 이어진다.

김윤수 심방(무당·68·제주시 조천읍 신촌리)은 안사인 심방이 1990년 타계한 후 5년 뒤인 1995년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두 번째 기능보유자로 지정돼 지금까지 맡고 있다. 또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회장을 맡아 굿의 계승·보존에 힘쓰고 있다.

안사인 심방은 1980년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 때 첫 기능보유자로 선정됐다.

칠머리당 인근에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이 건립되고 있다.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제주시 우당도서관 북쪽 3800㎡ 부지에 10억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을 짓고 있다.

전수관은 건축면적 760㎡ 규모에 무속굿 전시실과 영등굿 공연장, 세미나실, 교육실,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.

김현종 기자 tazan@jejunews.com

© 제주신보(<http://www.jejunews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